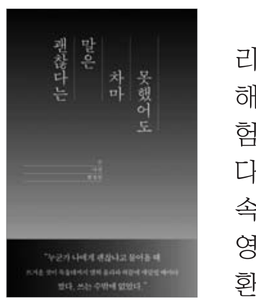
여행에서 느낀 성찰…울림이 있는 위로

괜찮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도

함정임 지음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실내에 있다가 정오의 햇빛 속으로 나아갈 때, 영화관 로비의 환환 조명 아래에서 휘장을 제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두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지만,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아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눈 앞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프라하 블타바강 어귀에 자리 잡은 카프카 뮤지엄. 〈작가정신 제공〉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로 하는 시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만만찮은 일이다. 끊임없는 넘어짐과 일어남의 반복이 우리의 삶이다.

웅숭깊은 눈동자로 삶의 속살에 숨은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산문집이 발간됐다. 예술과 사회 그리고 관계까지 아우르는 통찰력이 빛나는 책이다. 작가 함정임이 최근에 펴낸 ‘괜찮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도’는 말 대신 건네는 울림이 있는 글을 담고 있다. 작가는 그동안 ‘그리고 나는 베네치아로 갔다’, ‘파티의 기술’, ‘먹다, 사랑하다, 떠나다’와 같은 여행과 미술, 요리 등 다방면을 아우르는 산문집을 펴냈었다.

28년째 글쓰기로 공생애를 살아온 작가의 손길이 만져주는 지척은 깊이를 가리지 않는다. 함 작가는, 작가는 쓸 수밖에 없는 써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계를 유랑하며 사유한 성찰의 흔적들은 정연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책 제목 ‘괜찮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도’는 독자들에게 보내는 치유의 메시지다. ‘괜찮다’라는 말은, 사실은 괜찮지 않지만 그것을 삭이거나 아니면 괜찮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삶은 더러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힘겨울 때가 있다.

작가는 말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얼굴 생김새가 있고, 눈빛이 있고, 음색이 있고, 화법이 있듯”,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제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기에 함부로 자신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작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책을 읽는 이의 마음을 청한다.

책에는 모두 60여 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문학에 대한 식견에서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사람을 향한 따스한 애정, 역사에 대한 성찰 등 눈길이 닿는 폭도 넓다.

작가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이국의 땅을 밟으며 적은 글귀에서는 감상과 통찰력이 한꺼번에 묻어난다. ‘작가의 부엌’, ‘톨스토이의 무덤에서’, ‘베네치아에서 울다’, ‘2016년, 겨울, 파리’ 등의 글에서 느낄 수 있다.

반면 ‘검은 숲길을 지나 한참을’에서는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 배어나온다. ‘잘 가요, 엄마’에는 어머니의 부고를 자신의 불효라고 자책하는 심사가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대의 비극을 공감하는 ‘당신의 여름은 괜찮습니까’, ‘단순한 마음’에서는 현실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작가 정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작가는 ‘내 마른 손으로 너의 작은 손을 잡고’를 통해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유럽 한복판에 머물며 연대의 필요성을 외친다. 머나먼 나라에서 고독을 탐닉하며 자신만의 사유를 빚는 이방인의 역할은 물론 자신의 글쓰기 공간인 바닷가 서재에 앉아 읽고 쓰는 이들에게 이웃의 역할도 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여기에 모인 글들은 추모의 마음으로 애도 일기를 쓰듯 파도치는 바닷가 서재에서 건져 올린 하찮지만 고유한 삶의 편린들이다. 혀 끝에 맴돌던 말들을 여름의 안부처럼 건네본다”고 밝힌다.

〈작가정신·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양림동·순천·목포…찬란했던 근대역사를 걷다

골목길 역사산책 – 개항도시 편

최석호 지음

‘역사 산책자’ 최석호 서울신학대 교수가 광주 양림동 산책에 나섰다. KTX를 타고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만난 건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의 흉상. 이어 펭귄마을에 들러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둘러보고 한희원 미술관, 이장우 가옥, 사동 최부자집, 오웬 기념각, 선교사 사택을 거쳐 여행을 이어간다.

올 봄 북촌, 정동 등 서울 근대의 흔적을 찾아 걸었던 기록을 담은 ‘골목길 역사산책-서울 편’을 펴냈던 저자가 이번에는 부산, 인천, 순천, 광주 양림동, 목포 등 5개 개항도시를 찾아나선 기록 ‘골목길 역사산책 - 개항도시 편’을 출간했다. 저자는 ‘정해진 정답 외에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대로에서 쓴 역사 대신 그야말로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다양한 민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고려대 사회학과에서 레저관광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노팅엄 트렌드대학에서 유산관광 전공 문화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저자는 전통에서 근대로 과감하게 걸어들어간 개항도시 골목길을 걸으며 ‘걷는 만큼 보이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각 개항 도시의 특징과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산책 이이기로 구성했다. 다섯 개 역사산책로에 얽힌 사람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인 셈이다.

1904년 12월 25일 광주읍성 밖 어린이를 장례 지내던 풍장터에 첫 발을 들인 유진벨과 클레멘트 오웬이 함께 광주 제중원, 숭일학교, 수피여고 등을 짓고 양림동을 근대로 가는 길목으로 변모시키는 과정과 최흥종 목사 등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양림동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순천으로의 여행은 선교사 마을과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간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인 메모리얼 파크로 발걸음을 옮기며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과 순천 기독 진료소를 찾는다. 또 원도심을 지키고 있는 창작아트센터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행동골목길, 1920년 문을 연 빵집 화월당까지 순천 구석구석을 걸었다.

목포 여행길은 ‘고마운 일본인’ 와카마쓰 도사부로와 후광 김대중의 자취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쟁과 수탈의 흔적인 목포 근대역사관, 수많은 고아들의 보금자리인 공생원, 따뜻한 산동네 다순구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개항 당시 모습을 추억하는 영신여관에 들른다.

그밖에 부산 왜관거리와 40계단, 보수동 책방 골목, 자갈치 시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인천의 성동회 내동성당, 커피숍 싸리재 등도 방문한다.

〈시루·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블록체인 혁명=이 책은 기존의 ‘블록체인 혁명’을 무선제본으로 제작한 보급판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오늘날 경제계의 화두인 핀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여겨지는 블록체인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양장제본으로 제작됐던 기존 책과 달리 가벼운 종이를 사용해 책의 무게를 줄이면서 동시에 판형도 작게 하여 휴대성을 높였다. 또한 책의 정가를 낮춰 독자의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기존 도서에는 없던 주석을 추가로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을유문화사·1만6000원〉

▲초크맨=섬뜩한 도입부, 몇 개의 간략한 문장만으로 독자를 빨아들이는 압도적 묘사, 음산한 사운드트랙이 들려오는 듯한 오싹한 분위기로 인기를 끌고있는 이 책은 평화로운 작은마을 앤더베리의 열두 살 또래 친구들이 우연히 맞딱뜨린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십대들의 순수한 사랑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어른들 세계의 집착, 욕망, 폭력과 교차하고 그 안에서 우정, 상실, 인간의 나약한 육체와 정신을 둘러싼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산책방·1만5000원〉

▲풍요와 거품의 역사=이 책은 물질과 풍요를 숭배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국채’ 활용 여부로 승부가 갈린 포에니 전쟁, 세계 최초의 버블인 튤립 버블 등 ‘돈 문제’로 비롯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계사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 주는 독특한 시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을유문화사·1만5000원〉

▲예술가가 사랑한 집=15~19세기 유럽 미술의 거장 17인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집’ 그리고 ‘아틀리에’를 찾아 떠나는 예술 기행서다.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 달리가 사랑에 빠진 바닷마을 카다케스, 남프랑스 백작의 성 로트렉 생가, 르누아르의 저택 레 콜레트, 그리고 고흐의 다락방까지…. 책을 통해 유럽 미술사에 획을 그은 거장들의 과거를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둘러볼 수 있다. 〈페이퍼스토리·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행복하게 나란히=쌍둥이 자매 수아와 수재가 일상에서 겪는 남녀 차별 문제를 열 편의 짤막한 이야기로 담아낸 동화책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개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양성평등 문제들을 구체적인 생활 속 사건들로 다루고 있어, 남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진정으로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 준다.

〈별숲·1만1500원〉

▲마법의 빨간 부적=‘부적’이라는 주술적 매개체를 가지고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능숙하게 넘나드는 동화로, 틈만 나면 싸우는 형제가 신비한 부적으로 인해 영혼이 바뀐 뒤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렸다.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미워하던 형제가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애 좋은 형제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다.

〈창비·1만원〉

▲행운 전달자=쇼른슈타이너는 행운을 전하는 ‘행운 전달자’이다. 이야기는 쇼른슈타이너가 벨기에 북해 해안가로 뚝 떨어지면서 시작한다. 저자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는 책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행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어쩌면 행운은 우리에게도 왔었을 수도 혹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풀빛·1만2000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외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타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샛강다슬기
서구 풍금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 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닭 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솥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